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충남이면 충분히
와우!
2025-2026 충남방문의해

2025. 4. 24.(목), 14:00

충남문화관광재단 1층 대회의실

‘충남 문화예술 정책 발전 방향’

2025년 제2회 충남 문화관광포럼

2025년 제2회 충남 문화관광포럼 개최 계획

□ 포럼 개요

- 때 · 곳 : '25. 4. 24.(목) 14:00~15:30 / 충남문화관광재단 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40여명(충남도,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 주제 : '충남 문화예술 정책 발전 방향'
 - 주제발표 : 양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 좌 장 : 이지원(충남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본부장)
 - 토론자 : 박철희(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수석연구위원)
김경태(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 주최/주관 : 충청남도 / 충남문화관광재단

□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인사말씀	사회자 (문화관광재단 윤희기 경영기획팀장)
14:05~14:30	25	◆ 주제발표 - 지역 문화예술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부장
14:30~14:45	15	◆ 토론 1 - 충남 문화정책 방향에 대하여	박철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4:45~15:00	15	◆ 토론 2 -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 충남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광측면	김경태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15:00~15:25	25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5:25~15:30	5	◆ 폐회	사회자

주제발표

지역 문화예술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부장 양혜원

지역 문화예술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2025.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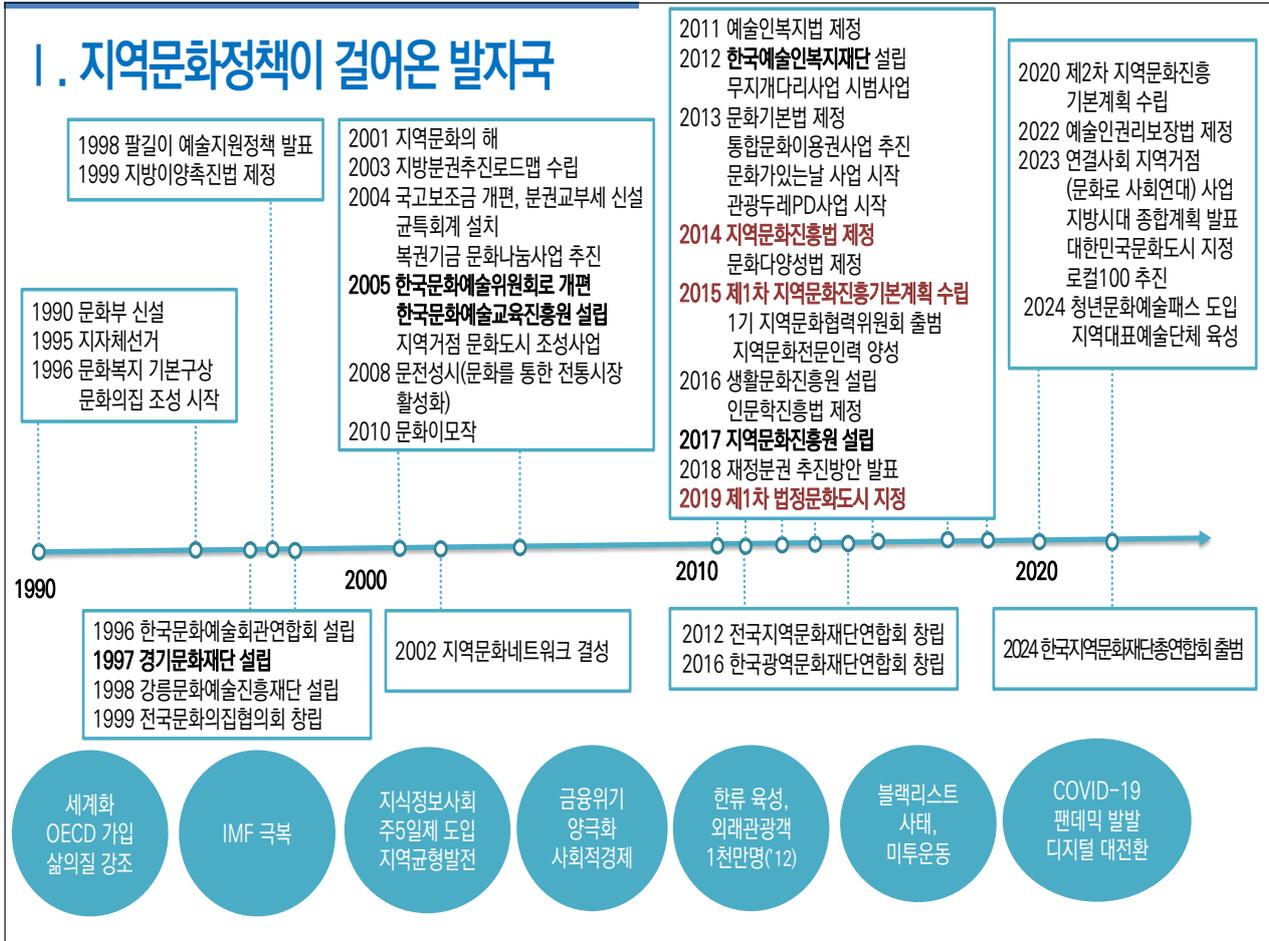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



논의의 순서

- 1 지역문화정책이 걸어온 발자국
- 2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 : 중앙정부
- 3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 : 지자체
- 4 지역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
- 5 지역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I. 지역문화정책이 걸어온 발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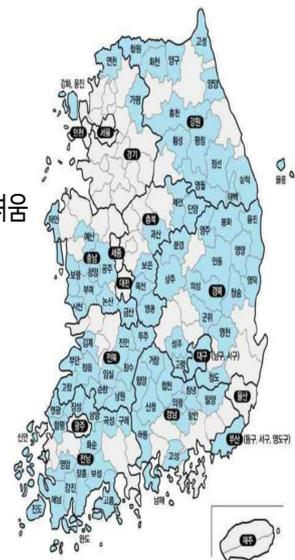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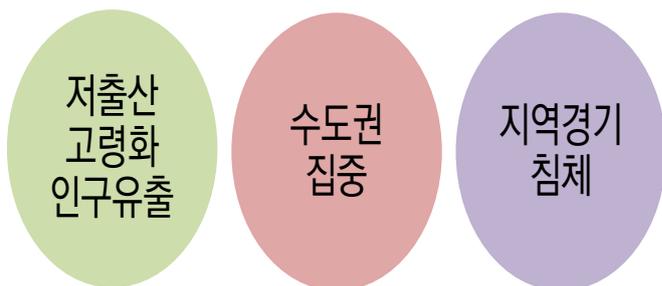


II.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 : 중앙정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2023.9.14)

■ 현 상황에 대한 진단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 생산, 고용, 기업, 인구
- 지방인구 감소 가속화 :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 중앙정부 주도 획일적 정책으로 지방의 생활여건, 발전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에 어려움
- 지방경제 체질 약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역량 저하
- 교육과 정주여건 격차 확대로 지방인재의 유출 심화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89곳)
행정안전부(2021)

II.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2023.10.30)



II.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 (문체부, 2023.3)



II.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 -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2023.12.28)

비전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		[1] 예술인 지원의 혁신	[2]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예위·지역재단 기능조정 기본 방안										
목표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	① 순수예술 지원 확대 - 기존사업 지원단위, 단가 확대 - 예술 자금지원 정책 도입 ② 예술 창작 지원 방식의 개선 - 간접 지원 / 다년·사후 지원 / 인큐베이징 지원 ③ 예술영재·청년예술인 양성 - 예술영재 교육 확대 -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확대 - 민간 예술단체의 청년 고용지원 ④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진출 지원 - 파리올림픽 계기 집중 홍보 - 문화예술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 K-아트 장르별 전략적 해외진출	⑤ 잠재관객 발굴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 예술 교육과정 확대 ⑥ 사각지대 없는 향유 지원 - 문화예술의 전국 유통지원 강화 - 국립단체·기관의 지역 순회 확대 ⑦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 지역의 대표 예술단체 육성 -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추진 - 대한민국 문화도시 육성 - 로컬100 확산으로 지역방문 촉진 ⑧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 서울 / 경기·강원권 / 충청권 / 경상권 / 전라·제주권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	[전략1] 예술인 지원의 혁신		[3]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문예위</th> <th>지역재단</th> </tr> </thead> <tbody> <tr> <td>기본특성</td> <td>전국단위/상징환경/지역균형 지원</td> <td>지역단위/상징기회 제공 중심 지원</td> </tr> <tr> <td>지원방식</td> <td>대규모 간접지원, 다년도 지속 지원</td> <td>소액, 단년도 공모사업 중심 지원</td> </tr> </tbody> </table>		구분	문예위	지역재단	기본특성	전국단위/상징환경/지역균형 지원	지역단위/상징기회 제공 중심 지원	지원방식	대규모 간접지원, 다년도 지속 지원	소액, 단년도 공모사업 중심 지원
	구분	문예위	지역재단												
	기본특성	전국단위/상징환경/지역균형 지원	지역단위/상징기회 제공 중심 지원												
지원방식	대규모 간접지원, 다년도 지속 지원	소액, 단년도 공모사업 중심 지원													
[전략2]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⑨ 사업·축제 대표 브랜드로 전면 재구조화 - 소액다건 사업 통합하여 대표 브랜드 사업화 - 주요 축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축제를 연계하여 대표 축제로 재탄생 ⑩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편 - 문화예술 지원기관 역할 재정립 - 유통·향유·국제교류 기능 일원화 - 국립문화예술시설 관리기관 신설													
[전략3]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II.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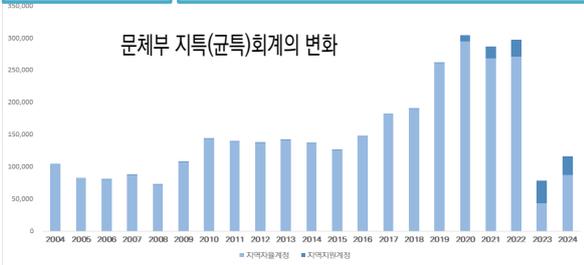
문화한국 2035 (2025.3)

비전	문화한국 2035 문화로 여는 미래, 문화로 빛나는 미래, 행복과 성장을 만드는 문화의 힘				<30대 핵심과제>									
목표	창의적 개인	역동하는 경제	행복한 사회	함께하는 세계	지역 문화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문화 균형 발전 국립예술단체 기존 지역 이전 및 함께 모일 재구조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 및 민간형 운영모델 개발 문화도시 30 추진 최 광역관광 개발 및 지역 생활인구 확대 중앙-지역 수렴적 협력체계 구축 			사회 위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수요자 중심 맞춤형 문화사업 조성 생애주기 생활체육 활성화 국민여가권 조성 문화영향평가 제도 확대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문화·체육·관광 통합 안전 체계 구축 				
핵심가치	창의성 + 혁신		다양성 + 포용		개방성 + 융합		산업 생태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문화·관광·스포츠 등 국가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 발전 단계 3단계인 시대의 관광산업 체계 구축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 시장 중심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시·기반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I) AI 기술 대응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혁신 AI 시대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문화예술 스포츠·관광 AX 지원 공공 데이터 구축·활용·개발 체계 마련 		
6대 방향	20대 추진전략				세계 문화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문화 리더십 제고 세계의 한국문화원 운영 혁신 및 한류 거점기관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수요 기반 문화 ODA 확대 및 관영형 협력체계 마련 국가이미지 제고 통합마케팅 남북 문화교류 전략적 단계적 추진 			문화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역량 제고 독서·문화 진흥 및 인문 가치 확산 사회·문화예술 교육 확대 예술·콘텐츠·관광 창의인재 양성 열린·선수·육성시스템 신문화 문화예술 지원 방식 개선 장르별 전문화 제정 및 지원체계 구축 				
지역 문화 균형 발전	1. 문화로 가고, 머물고, 살고 싶은 지역 조성				문화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I)	9. AI 디지털 기반 산업 융합 혁신 추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위기 문화적 대응	2.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 3. 단절과 차이를 넘어 문화로 공감 연대 4. 기후위기 대응하는 상생의 문화				글로벌 문화리더십 제고	10. 지속가능한 국제문화교류 기반 구축 11.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K-컬처 12. 국제사회와 동행하는 문화ODA 확대 13. 세계인이 가고, 살고, 싶은 대한민국 14. 미래를 향한 남북문화교류 추진 15. 국제스포츠 무대 중심, K-스포츠 재도약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생태계 혁신	5. 세계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K-콘텐츠 집중 육성 6. 관광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으로 관광대국 실현 7.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스포츠산업 기반 구축 8. 자유로운 창작과 유통을 촉진하는 예술시장 조성				문화역량제고	16. 상상력과 통찰력의 원천, 인문·독서문화 가치 제고 17.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강화로 창의인재 육성 18. 문화예술계 경쟁력 강화와 실직 예방 도모 19. 다양한 국민 여가 친화적 여건 조성 20. 고유 문화자산의 창조적 활용과 발전								

II.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

문체부 사업의 지방이양 현황(2005~2024)

2005년 국고보조금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개 사업(약 303억원) 지방이양되어 분권교부세 대상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문화의집 조성 및 운영지원, 예술창작공간 조성 지원 등) 11개 사업(약 941억원) 균특회계로 이관 (공립문화시설 건립 지원, 비엔날레,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야외음악당 건립 등)
2020년 지방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체부 5개 사업 4,033억원 규모 이양 문화도시조성사업 등 균특회계로 이관, 문진기금 예술의 관광자원화(91억원) 균특회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10개 사업, 1,076억원, 문예회관, 미술관 등) 및 지역문화행사지원(168억원) 지방이양
2022년 지방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체부 3개 사업 265억원 규모 이양 (일반) 문화예술교육활성화(107억원), (문진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61억원) 지방이양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공연장 상주단체지원사업 등
2023년 지방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체부 2개 사업 4,515억원 규모 이양 균특회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사업'(2,614억원) 등 지방이양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2024년 지방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40억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33억원) 지방이양 지역문화진흥사업(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지특회계로 이관(255억원)



- ✓ 2020~2024년 문체부 사업 9,780억원 지방이양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분야 사업 2023년 대폭 감소
 - (25)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239억원), 문화도시조성_지역자율(255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_지역지원(370억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207억원),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202억원), 문화균형발전 증진(38억원)
- ✓ 지역상생발전기금(전환사업보전계정)을 통해 2026년까지 한시적 보전

II.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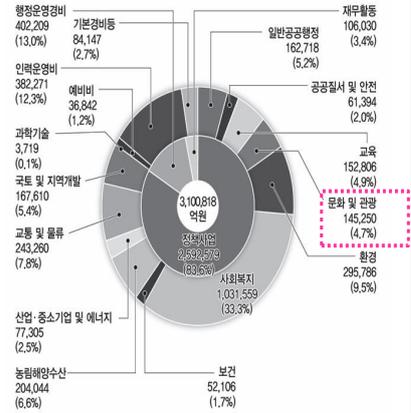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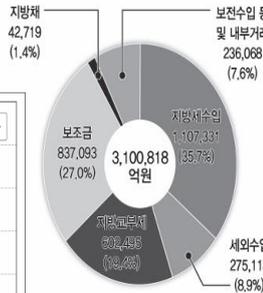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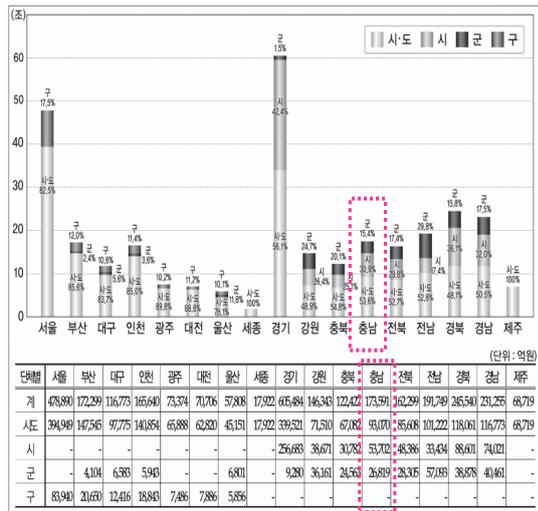
2025 문체부 예산

-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 7조 672억원 (문화예술부문 2조 3,824억원, 33.7%)
- 일반회계 : 3조 1,464억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061억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 4,573억원
- 문화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우리 문화자산 가치 제고
 - ①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15→25, +10) ②통합문화이용권(2,397→2,636, +239) ③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29→67, +38)
 - ④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32, 신규) ⑤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30, 신규) ⑥사회문제해결형 인문프로그램 운영(60→88, +28)
 - ⑦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10→35, +25), ⑧전통문화 해외진출 지원(10→30, +20), ⑨취약계층 아동 '꿈의 예술단' 지원 (107→125, +18) 등
- 청년·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 지원강화로 예술진입장벽 완화
 - ①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156, 신규) ②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지원(80→132, +50), ③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15, 신규)
 - ④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29, 신규) ⑤오페라합창단 운영(10, 신규), ⑥국립청년예술단 신설(49, 신규), ⑦산단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16, 신규) 등
- 지역예술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 강화
 - ①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90→120, +30), ②문화예술회관 활성화(8→35, +27) ③공공디자인혁신 지원(50, 신규)
 - ④경주APEC계기 전통기반 관광상설공연 및 명절 연휴 연계 공연 융합 상품개발(20, 신규) ⑤건축물미술작품 및 공공미술진흥(3, 신규)
 - ⑥지역문화관 활성화 및 협력지원(4, 신규)
- 예술 창업·유통 지원 및 예술시장 조성, 해외 진출 지원 강화
 - ①장르별 시장거점화(20, 신규), ②세계음악극축제 지원(12, 신규) ③문학 한류 활성화(41→45, +4) ④미술 해외신시장 개척(15, 신규) ⑤공공미술은행 설치 및 운영 지원(6, 신규), ⑥공연예술중장기창작 지원(66→86, +20) ⑦민간후원 활성화(30→75, +45), ⑧스포츠연계 예술축제 및 콘텐츠화(3→6, +3)
- 지역별 특화문화패키지 발굴 지원 등 국민문화향유 확대
 - ①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신규, +400), ②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300→377, +77), ③산업단지 문화프로그램(신규, +30)
 - ④APEC-문화의 달 등 주요 계기 문화프로그램(신규, +20) ⑤박물관·미술관 지역간 교류전시 지원(신규, +7) ⑥대학박물관 진흥 지원(6→11, +5)
 - ⑦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234→255, +21) ※지역문화진흥(22.9억원 16.6억원)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III.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 : 지자체

지자체 재정구조 : 지자체 세입/세출예산

- 2024 지자체 세입예산 규모(순계예산) : 310조 818억원
 - 국가예산 : 488조 6,219억원, 지방교육예산 : 92조 4,886억원
 - 중앙정부 : 자치단체 : 지방교육 = 54.8 : 34.8 : 10.4
 - 충남 : 17조 3,591억원
- 2024년 문화 및 관광 기능 지출 규모 : 14조 5,250억원 (4.7%)



행정안전부(2024),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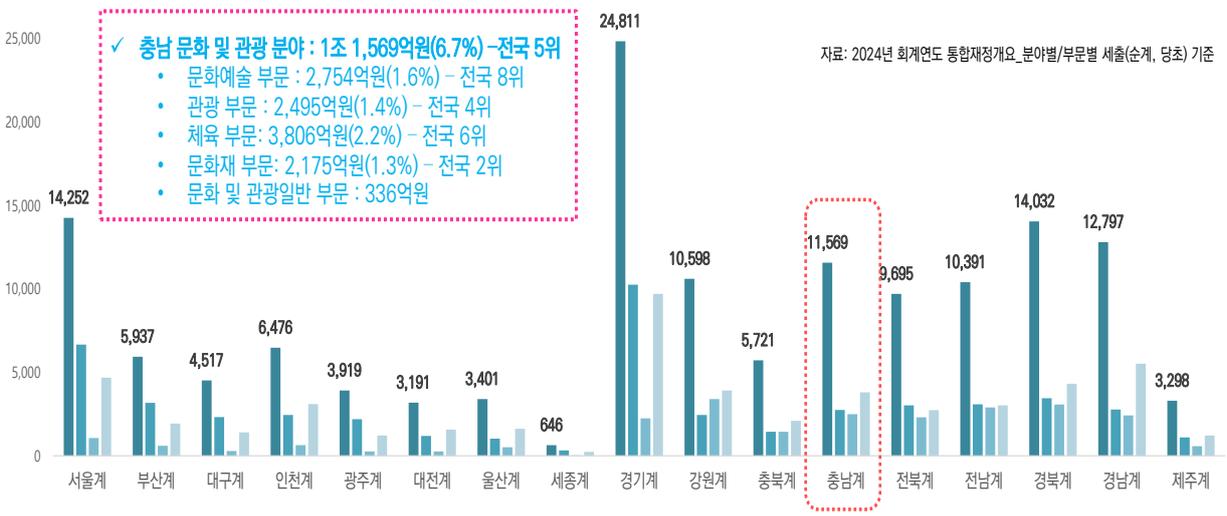
III.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

지자체 재정구조 : 지자체 세출예산

<지자체 기능별 세출예산(2024년, 당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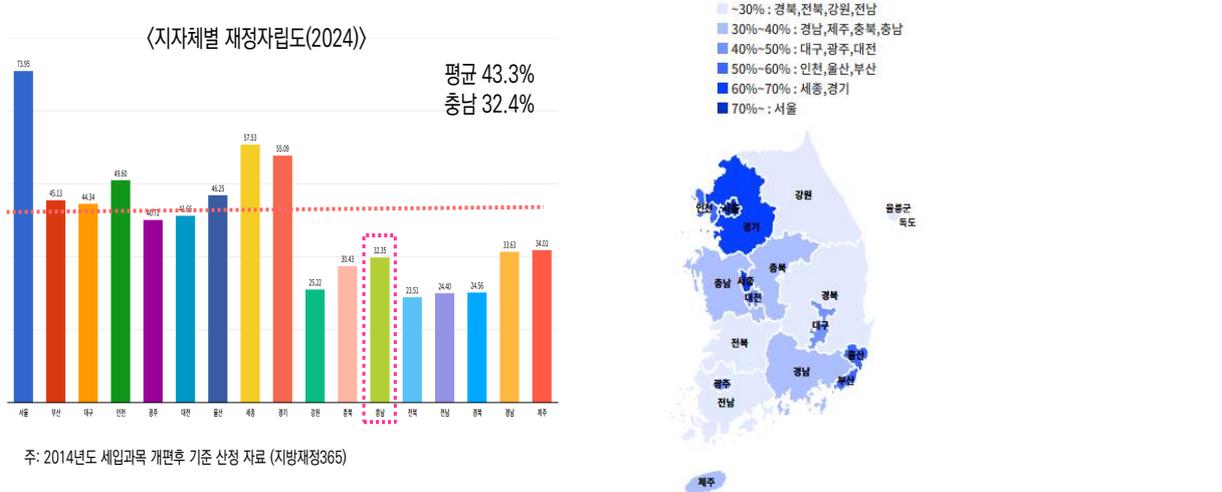
- 문화 및 관광 기능 : 14조 5,249 (4.7%)
- 국비(10.5%), 시도비(33.6%), 시군구비(55.8%)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062 관광 063 체육



III.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 : 지자체

지자체 재정구조 : 지자체 세입/세출예산



〈시도별 지역문화진흥기금 현황 : 법정재량기금(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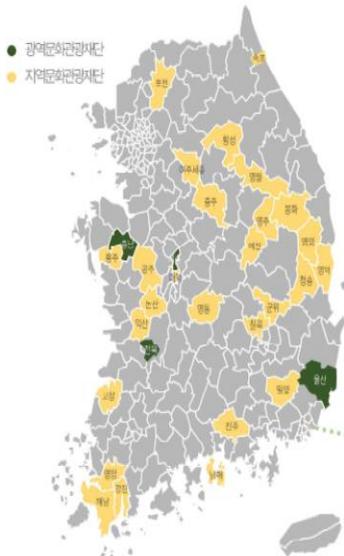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은 24개, 총 규모는 1,593억원 (전체 기금 중 0.3%) (단위: 백만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5,348	65,905	-	3,132	-	-	1,028	-	21,279	1,672	1,533	20,400	2,891	14,021	9,961	2,157	-	159,327

행정안전부(2024),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상)

III.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 :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2024.1 기준)



✓ 2024년 1월 기준 총 133개소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 광역자치단체 17개, 광역문화재단 17개소
-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초문화재단 116개소
- 2022년 이후 문화관광재단 재편 사례 증가 추세 (광역문화관광재단 4개소, 기초문화(축제)관광재단 27개소, 총 31개소)

광역문화재단 광역자치단체 17개	문화재단: 10개소 문화관광재단: 4개소 문화예술진흥관: 2개소 문화예술재단: 1개소	기초문화재단 기초자치단체 226개	문화재단: 87개소 문화관광재단: 24개소 축제관광재단: 3개소 문화예술재단: 2개소 문화산업진흥재단: 1개소
-------------------------	--	--------------------------	---

자료: 권순석(2024),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0년, 성과와 과제, 제45차 지역과 문화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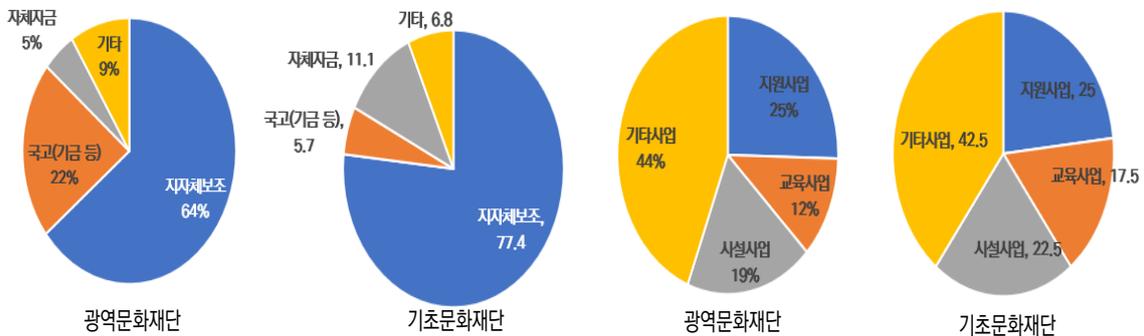
III. 지역문화정책의 현주소 :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운영 현황 (2023.1월 기준)

자료: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

구분	개소 (2023.1)	인력 (명)	평균인력(명)	정규직 비율 (%)	평균사업 수 (개)	평균 지원사업 수 (개)	평균 교육사업 수	평균 시설사업 수	평균 기타사업 수
광역문화재단	16	1,926	120.4명	64.2%	59	15	7	11	26
기초문화재단	115	7,212	62.7명	68.4%	40	10	7	9	17

구분	개소(2023.1)	평균예산	예산 합계 (억원)	지자체보조 (합계)	국고(기금등) (합계)	자체자금 (합계)	기타
광역문화재단	16	462.7억	7,403억	4,761억	1,602억	371억	670억
기초문화재단	115	93.6억	1조 582억	8,189	599억	1,177억	715억



IV. 지역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

지역문화정책의 성과

- 문화기반시설 접근성 개선 및 문화향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실현
-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정책의 확산을 통한 문화의 일상화 및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실현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발굴과 콘텐츠화를 통한 지역의 문화정체성 형성
- 지역 예술인 및 문화인력의 발굴과 육성
- 문화를 통한 지역 문제의 해결
- 문화창업, 로컬 크리에이터를 통한 지역 브랜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및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구축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문화정책 시야의 확장

IV. 지역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

지역문화정책의 한계

- 중앙정부 정책 및 재정예의 높은 의존도, 지역의 정책 및 연구 기능 취약
 - 권한 없는 사업집행기관화, 자체 역량 축적의 어려움, 지역 전체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의 부족
(예)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과정
 - 재정이양에 따른 문화사업의 축소 우려
- 경쟁공모사업 중심의 중앙정부 정책
 -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유발 및 격차 심화
- 지역문화인력이 오랜 기간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취약
-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종속성 / 순환보직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 / 정치적 변동에 따른 취약성
 - 사업의 전문성, 일관성, 장기적 지속가능성 훼손
- 문화재단의 관료화 현상 심화
- 지역 내부의 협력구조와 체계 미흡
- 지역 간 협력의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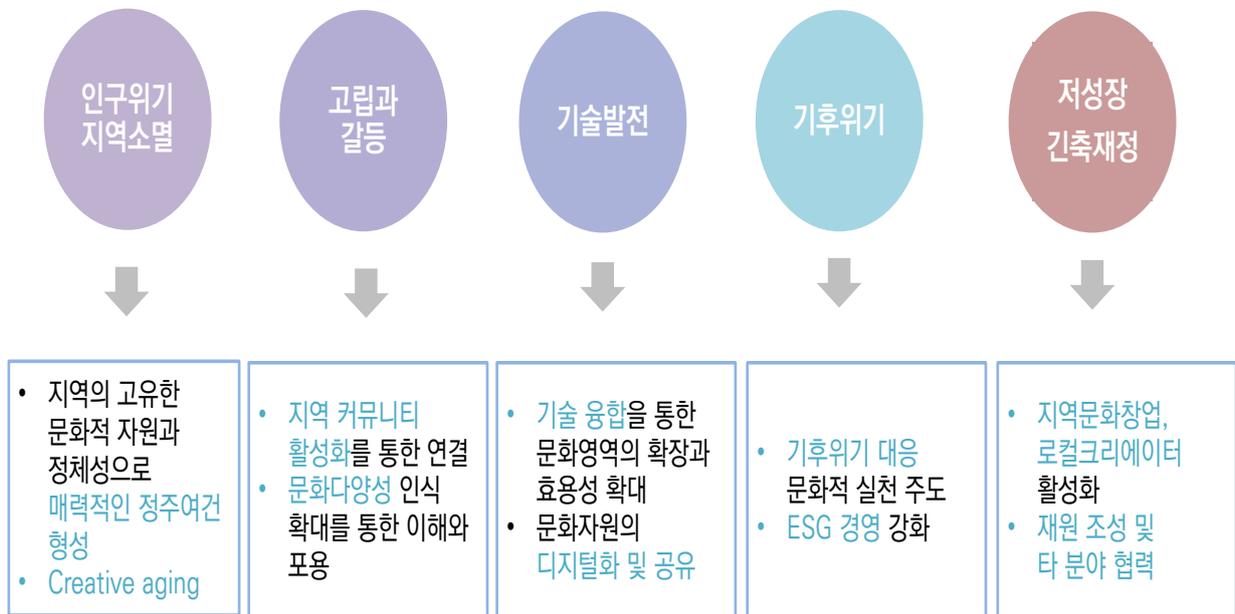
V. 지역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 대응방향

환경변화	영향 및 이슈	문화정책 대응방향
문화·관광·스포츠 향유형태 및 여건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소비의 개인화·파편화 • 기초예술의 취약성 심화 • 플랫폼 경제 확대 및 IP확보의 중요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유여건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정책, 질과 깊이, 다양성 확대 • 순수예술지원 혁신 • 글로벌 OTT, OTA 대응 IP생태계 구축
저성장·재정긴축·지방이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둔화: 시장위축 • 장기적 성장잠재력 감소 • 신보호주의 확대로 통상마찰 • 문화 분야 지원 감소 및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예술·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 우수인력확보 • 문화재정 확보 및 혁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AI 상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분야 가치사슬 및 생태계의 변화 • 일자리 대체 및 신규직업 출현 • 디지털 문화격차·디지털윤리 문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인프라·법제도 • 기술 전문인력 양성, R&D 확대 •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창의성과 성찰적 역량 강화
저출생·고령화·이주배경 주민 증가·지역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인적자원 유출 및 경쟁력 약화 • 사회적 돌봄 부담 확대 대응 • 지역의 고유성 및 활력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역량 제고 • 새로운 시장 발굴 • 문화돌봄시스템 준비 • 문화를 통한 지역고유성 확보 •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
사회갈등 심화와 공동체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심화 • 갈등과 혐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를 통한 연결로 사회적 고립 치유 • 문화를 통해 '다름'에 대한 포용과 존중
기후위기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피해 •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인식 변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스포츠분야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탄소절감모색 등 대응체계 마련 • 재난 및 안전 대응체계 구축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컬처 관련 상품 수출 증가 • 한국의 국가브랜드 및 소프트파워 향상 • K-컬처 열풍의 지속가능성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컬처의 지속가능성 담보 위해 연관분야로의 확장 및 교류·소통 강화 • 국제적 문화리더십 강화

V. 지역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지역이 직면한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V. 지역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 인구위기와 지역소멸에 대한 전망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인구: 5,167만명 - 유소년(0~14세) 595만명(11.5%) * 학령인구(6~21세): 750만명 초등 270만명, 중학교 137만명 고등 132만명, 대학 210만명 - 생산연령인구(15~64세) 3,674만명(71.1%) * 청년인구(19~34세) 1,061만명 - 고령인구(65세 이상) 898만명(17.4%) • 중위연령: 44.9세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 40.6명 • 이주배경인구: 220만명(4.3%) - 유소년인구(0~14세) 34만명 - 학령인구(6~21세) 33만명

20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인구: 5,082만 명 - 유소년(0~14세): 374만 명(7.4%) * 학령인구(6~21세): 482만명 초등 136만 명, 중학교 77만 명, 고등 95만 명, 대학 173만 명 - 생산연령인구(15~64세): 3,188만 명(62.6%) * 청년인구(19~34세): 813.3만명 - 고령인구(65세 이상): 1,521만 명(29.9%) • 중위연령: 59.5세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 59.4명 • 이주배경인구: 346만명 (6.8%) - 유소년인구(0~14세): 38만명 - 학령인구(6~21세): 46만명

- 고령화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부담 부담과 돌봄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 분야에서도 사회적 돌봄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문화 돌봄'의 체계와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 기대수명이 늘어났으나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므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문화정책 필요성 증대
- 지역인구의 소멸과 함께 지역이 보유한 고유한 언어나 지명, 풍속, 문화 등이 함께 소멸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정체성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이 가진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소중히 기록하고 지켜내어 계승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문화여가시설과 서비스는 지역주민이 지역에 머무르게 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에서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민들이 수도권 못지 않게 풍요로운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
- 지역이 가진 고유한 개성과 특색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쇠퇴해가는 지역의 골목과 상권을 살리고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

V. 지역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화적 해법 모색

✓ 인구위기·지역소멸 대응 :

문화로 가고, 머물고,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원과 정체성으로 매력적인

정주여건 형성

▪ 전 생애에 걸쳐 빈틈없는 문화돌봄시스템 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돌봄서비스 제공,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

▪ 기능중심 시설조성 패러다임을 수요자의

질 높은 요구를 다층적으로 충족시키는 맞춤형

시설조성으로 전환(예: 어린이예술마을, 시니어

친화형 여가센터, 모두예술콤플렉스 등)

▪ 지역 노후시설 및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활용

▪ 지역문화인프라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

융복합시설, PPP방식

▪ 대학, 성공, 경제적 부와 같이 획일화된 가치 외에

다양한 삶의 가치와 방식에 대한 인식과 성찰 기회

제공

구분	문화돌봄서비스 예시	
생애주기	세대별 맞춤 문화돌봄서비스	
영유아기 (만0~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벌이, 한부모, 빈곤가구, 농어촌 지역 아이들의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아동친화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 부족 지역에 놀이 인프라를 확충 현재 6세부터 적용하고 있는 문화바우처를 영유아까지도 확대 돌봄기관의 영유아 대상 문화체육프로그램 콘텐츠, 강사 지원 문화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각급 병원/요양시설/가정에 문화예술치유/움직임 프로그램 지원 세대간 문화적 교류 촉진 프로그램 : 어르신과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공유하고 글, 그림, 음악, 연극 등으로 표현하는 프로젝트 추진
학령기 (만6~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향유권 및 놀이권 보장 (어린이 친화 복합문화공간)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스포츠교육의 내실화 놀이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질적 내실화 지원 학교 밖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청년기 (만19~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둔청년, 실업 및 구직활동 중인 청년을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육아기 청년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주말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육아기 아동 보호자의 문화향유 기회 보장을 위해 문화·체육시설 내 일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장년기 (만35~6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친화적 문화, 체육 공간 조성 양육자가 쉽고 여가를 함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시 환경 인프라 조성 	
노년기 (만6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시설에 문화여가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지원 치매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 대학 과정 내에 고령자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포함 고령자 여가 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 	

V. 지역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화적 해법 모색

❖ **고립, 갈등, 혐오 심화에 대응 :** 이념, 계층, 연령, 성별, 이주배경에 따른 혐오와 갈등, 사회적 고립·외로움 심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 보수와 진보간 이념 갈등(3.3점) > 빈곤층과 중/상층 계층 갈등(2.9점) > 근로자와 고용주간 노사갈등(2.8점) > 개발과 환경보존(2.7점) > 고령층과 젊은 층(2.6점), (2.7점) > 종교/내국인과 외국인/남자와 여자/수도권과 지방(2.4점) 순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주요 갈등원인으로는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24.7%), 빈부격차(23.3%), 이해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21.8%), 개인·집단간 가치관 차이(12.1%), 권력 집중(11.5%), 기회의 불평등(4.9%), 갈등 조정 기구 및 제도의 미비(1.7%)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문화를 통한 커뮤니티 연결로 사회적 연대 강화**

• 고립된 이들을 지역 또는 사회의 다른 이들과 연결하여 사회적·감정적 필요 충족, 문화적 접근방법을 통해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관계 형성 및 신뢰 구축

✓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다른 집단(소수자·집단)과의 만남, 이해와 소통 기회 확대

✓ **문화치유 활성화**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치유 모델 개발 및 확산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치유와 문화적 예방·회복 추진 및 치유관련 협력체계 구축

✓ **장애로 차별 받지 않는 문화적 환경 마련**

• 장애유형별 문화예술접근성 개선 / 열린 관광지 확대 / 무장애 관광공급 기반 마련

• 장애인문화접근성 매니저 및 유관인력 양성

V. 지역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화적 해법 모색

✓ 디지털 및 인공지능 대전환(AI: AI transformation) 시대에 대응

- 7대 핵심기술 개발, R&D 추진체계 개편, 지역 권역별 CT 연구소 지정 추진
- AI, 빅데이터, 증강현실, 무인화 기술, Io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창작 및 유통 과정 혁신, 개인화된 관객(관광객) 경험 강화,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영역 확장 : (가칭) 지역 거점형 AI예술 창작작센터
- 센서 네트워크와 AI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관람객 정보(동선, 체류시간 등)를 빅데이터로 구축
- 지능형 문화시설(공간) 구축 및 콘텐츠·서비스의 기획·운영으로 운영 효율성 증대, 안전성 향상
- 융합 전문인력 양성
- AI 시대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저작권 인정기준 마련, 저작물 등록기준 개편, 저작물 이용규범 및 거래모델 구축,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립, 지원체계 개편, 퍼블리시티권 보호 등), AI 학습데이터 구축, 고문문화 왜곡 방지

✓ 기후위기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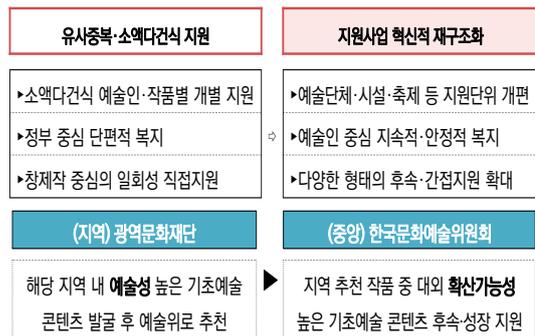
- 문화 분야 기후위기 대응 체계 마련과 탄소배출 절감 유도
- 기후위기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위한 문화프로젝트 :
 - (예) 문화가 있는 정원, 개성있는 파크렛 조성, 차없는 도시 프로젝트,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예술프로젝트
 - (사례) 샌프란시스코 Parklet, Parking day, Ground Play 사업
- 지속가능한 경영(ESG) 실천 확산

V. 지역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문화예술생태계의 건강한 작동을 통한 질적 성숙의 시대로

✓ 문화예술계 경쟁력 강화와 질적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혁신

- 지역 기반 우수 예술단체 신설 및 육성 ('25년 32개 단체)
- 시·군·도립 예술단체 대표 레퍼토리 발굴 지원('26년~)
- 주요 지역 공공극장의 제작특성화 유도(지역문화관 특성화 사업 추진, '25~)
- 장르 특화 예술축제의 스케일업을 위한 기획사업 지원('25~)
- 예술지원기관 기능 재조정
- 직접지원보다 공간·장비, 홍보·유통 등 자생적 성장을 위한 간접지원 강화
- 공연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검토 (예 : 미국 뉴욕주 제작비의 25% 세액공제)
- 장식·미화 목적의 법인취득 미술품 손금산입 한도 상향으로 기업의 미술품 구입 활성화
- 예술 후원·협찬 및 문화접대비 등 비용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신설 검토
- 심사방식 개편 및 예술비평과 객관적 지표 기반 후속지원체계 마련
- 중앙-지역 사업 연계 확대
- 지역 단위 유통, 국제교류 등 지역예술의 도약을 위한 사업 고도화, 지역협력관 중심 연계사업 발굴



✓ 예술인 역량 강화 및 권리 보장

- 자립형 복지 위한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공제사업 실시 : 퇴직연금형/적립형/보험형 공제, 재해보상 보장,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V. 지역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문화예술생태계의 건강한 작동을 통한 질적 성숙의 시대로

✓ 문화예술교육

- 학교예술교육 혁신
 - 정부(인력양성, 모델수립) - 교육청(직접 시행)으로 역할 재구조화
 - 지역별 지원구조 이원화(자립희망지역-자립모델* 개발 / 자립 어려운지역 - 정부지원 및 사업개선)
 - *초중고 내 예술가 레지던시 도입, 주제 중심 교사-예술가 협력프로젝트, 지역별 매개자 활용 학교-예술가(단체) 프로그램 기획운영
-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대 :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직주근접 생활밀착형 교육
- 문화전문인력 : 전문연수원 조성 및 예술교육 통합플랫폼 구축(정보제공, 수요-공급 매칭, 예술교육가 경력관리 등)

✓ 문화여가수요 촉진 및 시장 창출

-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범위 단계적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 기획사업의 자율성 확대, 스포츠이용권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OTT, 잡지 등(현재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
- 여행가는 달 국내관광 혜택 제공
- 근로자 휴가지원을 점진적으로 민간주도형 정책으로 전환, 워케이션 거점 및 워케이션 마을 조성 지원
- 여가친화인증제 인센티브 확대

✓ (가칭) 국민여가기금 조성

- 문화예술, 생활체육, 국민관광 등 범 문화 차원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여가 프로그램·시설조성, 인력 지원사업

V. 지역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관계와 역할

▪ 중앙-지역의 관계 전환 및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 확대

- 중앙과 지역 간 동등한 파트너(협력) 관계 수립 및 국가위임사무에서 지역의 권한(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공문장을 통한 국가-광역-기초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방향 도출
- 단계적 이양을 통해 준비기간 부여로 제도적 정착률 유도
- 향후 중앙정부-지자체 간 '문화협약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하는 방안 모색 필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에서 모두가 누려야 할 국가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으로서 문화균형발전 추진 • 지역 단위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이나 국가적 파급효과가 큰 기능에 대한 선도적 역할 • 지역이 적정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또는 초광역 단위 수행이 필요한 기능 •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간 매개와 조정 역할 <p>✓ 인구 규모, 행정구역상 특성(시/도) 산업적 특성(도시/농촌/노동복합)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p> <p>✓ 광역지자체의 역할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지자체의 여건과 수요,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추진 • (예)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 최적의 문화서비스(Local Optimum) 제공

V. 지역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지역문화정책의 역할

- ✓ 건강한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구축 : 창·제작 - 매개·유통 - 향유·교육·소비가 균형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여건 구축
- ✓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문화정책 주도 (예) 지역 단위 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작동
- ✓ 문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과 확산 : 문화-관광 간 유기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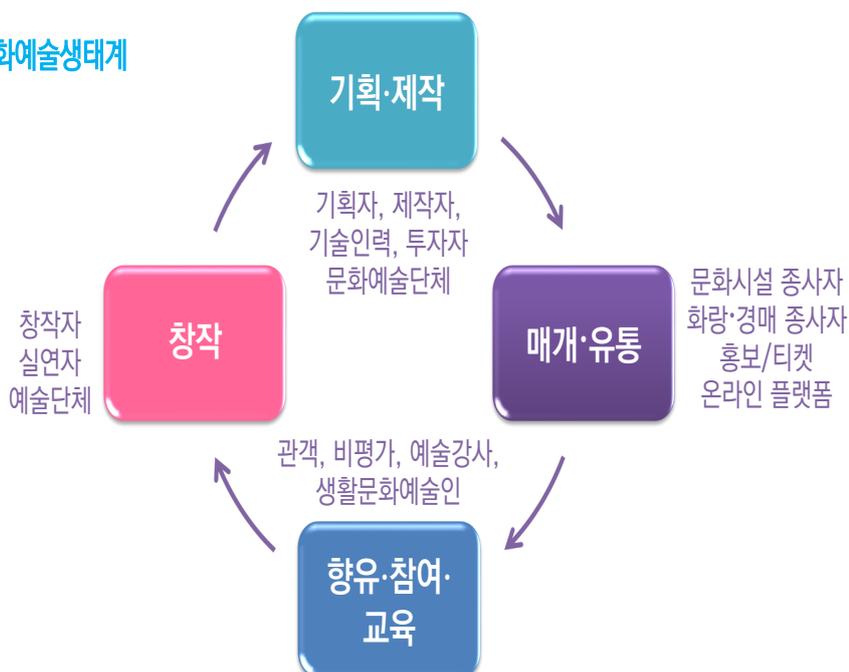


V. 지역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지역의 문화적 자산
(Cultural Asset)

비영리 / 사회적경제 / 영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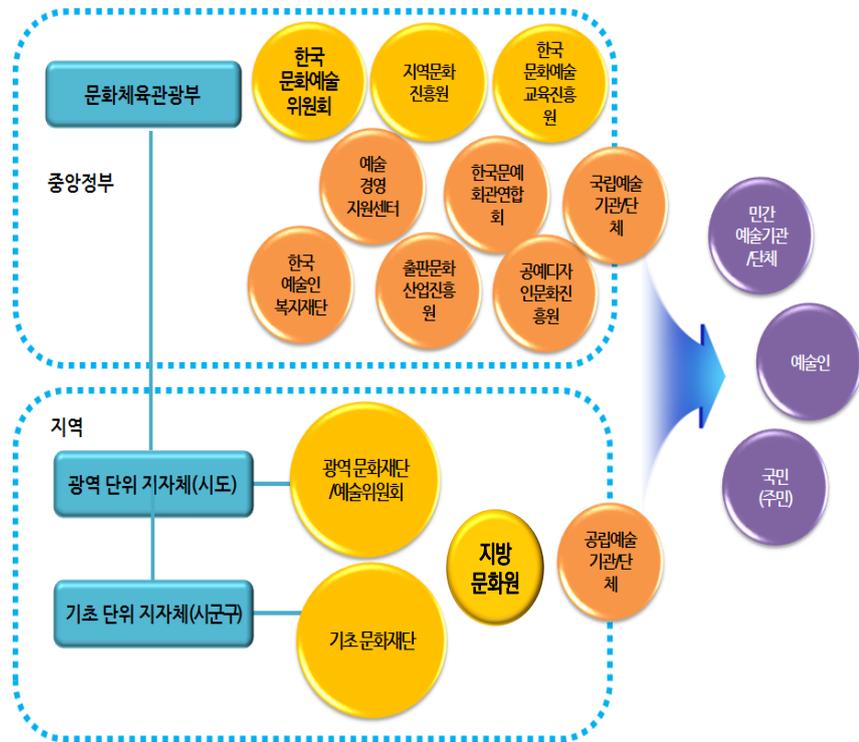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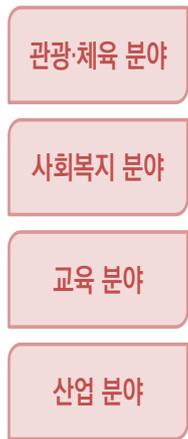
- ✓ 지역문화예술생태계



V. 지역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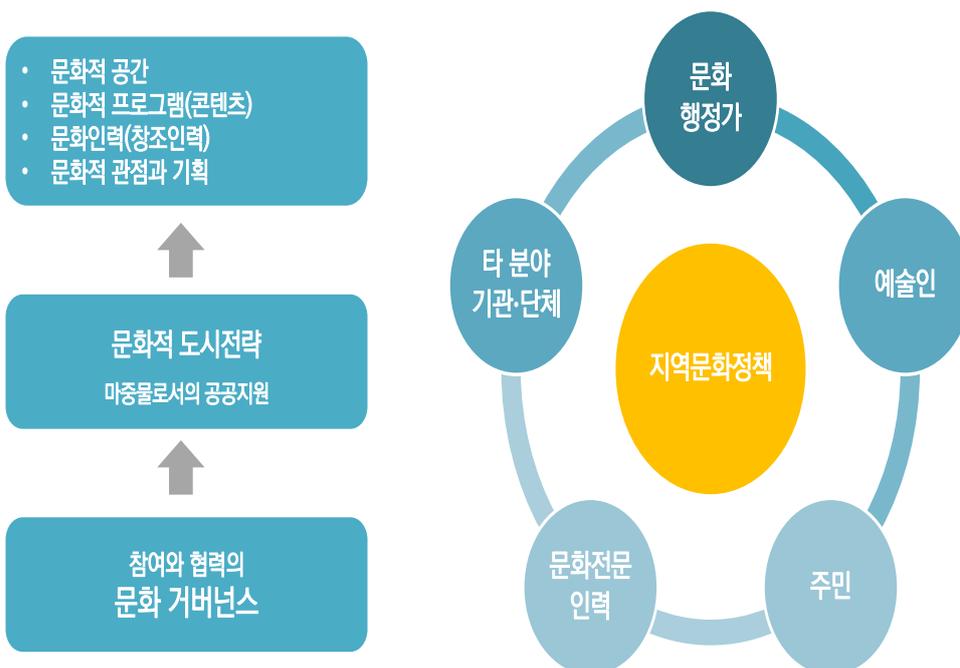
✓ 지역문화정책체계

- 추진체계/전달체계/협력체계
- 조직/인력/자원



V. 지역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문화기획자의 역할



V. 지역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

- ✓ 문화의 가치,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전문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 및 자율성 보장 (공적 책임성 확보)
- ✓ 사업을 통해 발굴되고 함께 성장해온 사람들의 존중
- ✓ 사업이나 주요 인력의 임용에 정치적 휘둘림 견제
- ✓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시도 확대
- ✓ 타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영역의 확장
- ✓ 섬세한 과정설계(process design)의 중요성 인식 : 주체들 간 가치의 공유와 협업
- ✓ 다양한 공적재원 확보 및 활용
 - 문체부 및 타 부처 국고사업
 - 지역문화진흥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 ✓ 문화 관련 비즈니스 수익모델의 지속 개발과 확장, 문화예술 시장의 형성을 통한 자생성 확보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2023),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 권순석(2024),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0년, 성과와 과제, 제45차 지역과 문화포럼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202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 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2025), 문화한국 2035.
- 양혜원(2024), 문화정책의 흐름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모색,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 관광박람회 지식공유포럼 발제문
- 김규원·변지혜·양혜원(2024), 지방시대 문화정책 방향 연구
- 정정길 외(2020),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2024),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감사합니다.

토론 1

충남 문화정책 방향에 대하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철희

충남 문화정책 방향에 대하여...

▣ 들어가기

충남에서는 비법정 계획으로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2014), 충남2030문화비전(2021)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성과를 떠나 광역차원에서 수립하여 문화발전을 도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지역문화진흥법)과 연계하여 충남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지만 이보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최근 문화한국 2035 계획을 발표(25.3)하였고, 오늘 지역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제언을 들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정책환경 및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정책환경 분석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한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은 타 시도와 충남이 비슷한데, 국가적 차원에서의 강점을 ‘충남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한국 2035 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강점:①K-콘텐츠 경쟁력, ②예술, 스포츠 등 뛰어난 인적자원, ③기업 성장 성공 모델 보유, ④기술 등 환경변화 대응력 등

▣ 충남 문화(예술)의 역할

충남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하여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 1) 국가적 차원에서 충남의 문화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 2) 충남의 문화적 특징은 무엇으로 정의(정체성)될 수 있을까?
- 3) 충남의 문화정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 4) 충남의 예술인은 안전하고 창작활동에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는가?

1) 국가적 차원에서 충남의 문화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되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류에서 충남은 무엇에 어느 정도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 ⇒ 한류 문화의 중심, 허브 역할, 부산 ⇒ 영화, 대구 ⇒ 오페라, 광주 ⇒ 아시아 문화전당, 판소리 등을 제시하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충남의 문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충남은 보편적인 문화정책을 넘어 특화 선택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을 대표(브랜드)하는 문화예술장르를 선정하고 이를 국가적 정책으로 육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K-콘텐츠 메가 프로젝트)을 역으로 유치하여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천안·아산지역은 K-콘텐츠, 영상, 게임산업 육성에 공간적 입지, 인적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대중문화 예술명예의전당’을 유치한다면 국가차원에서 내포혁신도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시 활성화와 브랜드화에도 기폭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K-콘텐츠 메가 프로젝트 중의 하나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노력 필요

프로젝트명	내용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35년)	기획사·제작사 참여형 엔터테인먼트(K-팝, 게임, 웹툰 등) 아카데미, AI 등 신기술 콘텐츠 스튜디오 등 K-콘텐츠 기반 교육+산업+향유 거점 조성
국립 영상박물관 (~'30년)	세계적인 영상 강국 위상에 맞는 국가 차원의 영상박물관 건립 추진 통해 영화·영상 산업 지속 발전 및 관광자원화 추진
대중문화 예술명예의전당 (~'29년)	한국 대중문화예술 전 장르를 아우르는 기념의 공간이자, 아카이브·교육 등 복합문화시설 설립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분야 랜드마크 조성
게임 콤플렉스 (~'30년)	게임박물관, 아카이브, 전시·체험 시설 등 '게임복합문화공간' 건립을 통해 세계 4위 규모의 게임강국 및 이스포츠 중추국 위상 확립

2) 충남의 문화적 특징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

지역의 경우 예술과 역사를 분리하기 보다는 예술+ 역사를 융복합하여 문화적 특징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이순신(현충사를 중심), 독립운동(독립기념관), 백제문화(국립공주, 부여박물관, 백제문화단지), 내포 천주교 종교문화 등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희미하였지만, 백제문화권 개발, 이순신에 대한 인지도 상승(영화, 유튜브 등), 독립정신과 종교 문화의 확산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문화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 & 미래에 중요한 테마와 소재라 생각합니다.

충남의 4개 거점 문화자산을 테마로 환상형 K-헤리티지 벨트(천안·아산↔공주·부여↔당진·서산·내포)를 구축하고, 지역과 연결 - 충남문화 세계화 프로젝트 제안합니다.

3) 충남의 문화정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개선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물론 인프라 부족으로 이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역단위에서 인프라 구축은 한계가 있으며 기초의 역할이 중요하며, 여가활동 만족도에 있어서도 기초단위의 지자체(시·군), 직·간접적인 관련기관(문화관광재단,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도민 문화여가 만족도 증진을 위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실제로 작동하는 강력한 소프트적 문화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문화여가 정책을 발굴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화서비스 공급 체계화 개선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충남의 예술인은 안전하고 창작 활동에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는가?

충남 예술인의 안전과 활동은 상기 1), 2), 3)을 실현하는데 기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남 2030 문화비전’을 통해 충남문화관광재단 내에 예술인복지팀이 만들어져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하고 활성화한 것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안정망 구축은 예술인 창작 활동에 기회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합니다.

〉 충남 문화예술제 개최와 상설화

예술제 개최 사례	내용	비고
에치고쓰마리 트리엔날레 (Echigo-Tsumari Art Triennale)	농촌 지역에서 열리며, 예술로 지역 재생을 실현한 대표 사례 -주요분야: 설치미술, 마을 프로젝트 등	일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모차르트의 고향에서 열리는 고전음악 중심의 예술제 -주요분야: 클래식 음악, 오페라	오스트리아
선댄스 영화제 (Sundance Film Festival)	-독립영화 중심의 대표 영화제	미국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에든버러 프린지(Fringe)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 예술제 -주요분야: 멀티터리 타투, 연극, 오페라, 무용, 클래식 음악	영국

〉 디지털 전환에 맞춘 디지털 창작 지원 확대(AI 활용, 메타버스 등)

〉 청년 예술인 맞춤형 지원 강화

〉 공공미술 프로젝트: 창작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정주여건 개선, 경관자원화 측면

- 예술을 학교나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하여 예술인의 고용 창출 및 지속 창작 유도

- "Artsmark"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와 예술인을 연결

토론 2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 충남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광측면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김 경 태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 충남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광 측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은 주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주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문화의 학습, 창조, 전달, 향수, 축적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조건과 기반을 정비하는데 있다.

충남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문화의 보존이나 전승과 같은 전통적 문화정책의 범주를 뛰어넘어 차별화된 지역문화예술의 발굴을 위해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중장기 문화예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산업화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의 힘’을 통해 지역을 활기있게 하려는 지역 활성화 전략, 또는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경영전략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충남도는 2024년 ‘2030 충남 관광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면서 비전을 “문화와 레저의 중심, 미래 관광 충남”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 중에 하나로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관광도시 조성”을 설정하고 있다. 즉 충남의 주요 관광정책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자원, 종교자원, 예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상품 개발을 주요한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관광매력 요인을 갖춘 역사 및 인문(지리) 등 원천소스를 활용한 지역중심 관광 활성화로 (1) 역사문화 자원 관광지 조성을 위해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해미국제성지 기반 내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한의약령마을 조성’, ‘충남 유교실크로드 기점사업’,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마을 조성’과 (2) 지역 역사 관광지 지속 추진 사업으로 ‘성삼문 선생 유허지 「매죽헌 공원」 조성’, ‘면천읍성 역사문화도시 조성’, ‘대한민국 축구역사박물관 조성’, ‘홍산면 보부상 여행’, ‘합덕제 확대복원사업’을 제시하고 있고 2) 충남 전체 종교 및 순례 관광지 조성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로 (1) 성지순례 관광지 조성을 위해 ‘K-순례길 작은명소 조성’, ‘내포종교역사 라키비움(울림공간)조성’, ‘K-순례 내포문화권 거점 강화- 홍주성지 거점 강화’와 (2) 종교관광 프로그램으로 ‘세계종교엑스포 개최’, ‘성지순례 문화 탐방 코스 상품 개발 및 운영’, ‘금산순례여행’ 등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3) 충남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관광자원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 근대문화거리 관광상품화를 위해 ‘강경 근대문화거리

관광상품화’, ‘충남 근현대거리 조성’과 (2) 충남 근현대 유희시설 관광자원화를 위해 ‘방지된 건물 문화공간 재활용’, ‘버려진 산업시설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대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인 ‘오감힐링 관광도시 조성’ 전략도 충남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광 전략으로 주요 사업으로 1) 지역별 특색있는 오감만족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1) 지역 특화 음식 체험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화, (2) 자연 치유 및 힐링 관광지 조성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3) 지속적인 지역 문화 예술 페스티벌 ‘크로스 X’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은 (1) 지역 문화예술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K-컬처 클러스터 조성’, ‘지역 특화 문화 상품 개발’을 위해 -웨스트 씨월 갤러리(The West-Seawall Gallery) : 해안경관도로 아트화, 이벤트성 행사 운영, 공공예술 프로젝트화, -역전시장 문화 특화형 전통시장 정비 및 지원, -금산인문학기행, -효자도 및 가경주마을 어촌민속마을 조성,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을 제안하고 있고 (2) 섬 국제 비엔날레 지속 개최를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30년까지 충남 관광의 주요 정책은 충남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예술 관광상품 개발이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제문에서 제시된 지역의 과제인 인구위기 지역소멸, 고립과 갈등, 저성장 긴축재정 등의 다양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관광측면에서 충남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과 자생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문화예술단체의 지원도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무엇보다 신진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젊은층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도 자신의 역량을 의욕적으로 펼칠 수 있는 활동 무대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연극, 무용, 합창, 국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연대회를 매회 개최하고 신진 발굴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1회씩 개최되는 경연의 방식이 아니라 잠재력 있는 신진 문화예술인에게 작품 제작이나 공연, 전시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관광상품화 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 활동의 생활화를 보다 지역주민 전문가 육성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적 힘은 전문 문화예술인의 규모나 수준에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 주민의 문화적 감수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국 장예모 감독의 인상(印象) 시리즈 공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주민

을 활용한 대규모 공연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공연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현재 충남의 경우 지역 축제에서 다양한 공연 작품을 올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른 지역의 전문 배우를 활용한 공연으로 개최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역주민 전문 예술인 육성을 통해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충남 문화예술 콘텐츠의 지역 산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에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고 각 지자체별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을 발생시키는 산업적인 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OSMU 방식을 통한 문화 산업화를 성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풍부하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단순히 문화콘텐츠 개발에 머무르지 말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관광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상품, 경쟁력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 지역문화예술을 지역민들의 향유, 계승, 보존의 관점에서 지역 상품화와 산업화의 관점으로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